

경제 이슈 · 금리

연준은 12월 금리 인상을 저울질, M7 실적은 클라우드 성장 속도가 관건

시장은 연준이 10월 28일 금리를 묶고 12월에 올릴 가능성을 76.2%로 보고 있고, 이번 주 실적을 내는 마이크로소프트·알파벳·아마존에서는 애저·구글 클라우드·AWS가 늘어난 설비투자만큼 빠르게 성장하는지가 쟁점입니다.

글 서고지기 · 2026. 10. 26 · 읽는 데 6분

이 글의 요점

- 1 시장은 연준이 10월 28일 금리를 묶고, 12월에 올릴 가능성을 76.2%로 봅니다.
- 2 9월 점도표에서는 위원 18명 중 12명이 연말까지 한 번 더 인상을 예상했고, 로이터 설문에서는 이코노미스트 100명 모두가 12월 인상을 내다봤습니다.
- 3 월가는 매출이 알파벳 25%, 마이크로소프트 17%, 아마존 12% 늘 것으로 보고, 애저·구글 클라우드·AWS의 성장 속도를 눈여겨봅니다.

12월 금리 인상 확률

76.2%

2026년 10월 26일 보도 · CME 페드워치

미국 2년물 국제 금리

4.69%

2026년 10월 23일

알파벳 매출 예상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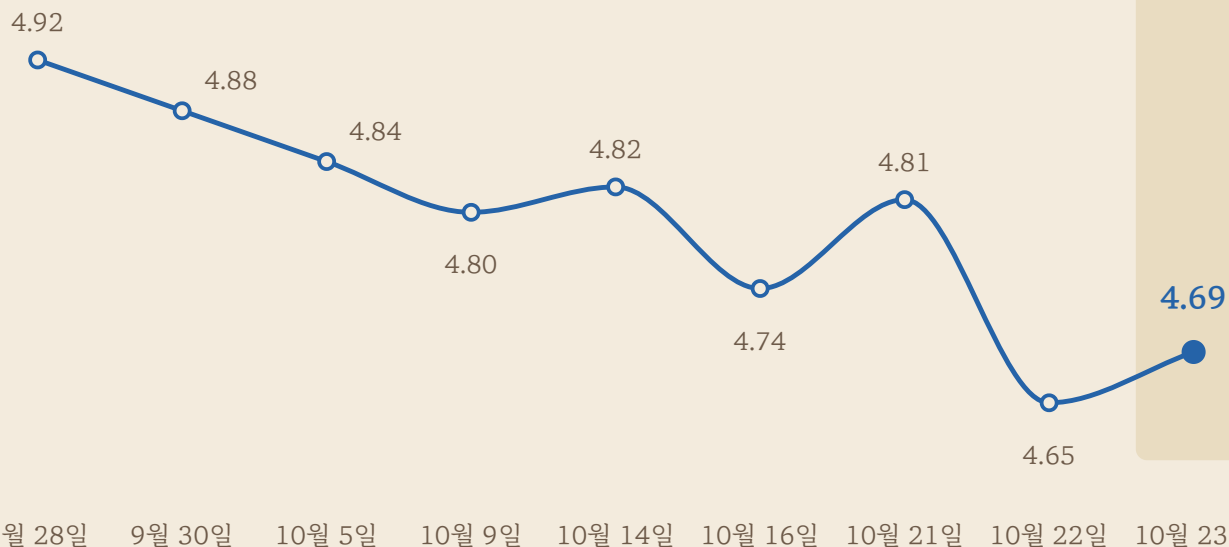
+25%

2026년 3분기 · 1년 전 대비

1 이번 주는 동결, 12월에는 인상이 유력하다

미국 2년물 국채 금리 (%)

9월 28일보다 0.23%p 하락



출처: 미국 재무부

미국 연방준비제도(연준)는 10월 27~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를 엽니다. 결정은 한국 시각으로 10월 29일 새벽에 나옵니다.^{[1][2]} 9월 16일 기준금리를 0.25%p 올려 3.75~4.00%로 만든 뒤 처음 여는 회의입니다.^[2]

시장은 이번에는 금리를 묶고 12월에 올릴 것으로 봅니다. CME 페드워치에 담긴 확률은 이번 회의 동결 90.0%, 12월 인상 76.2%입니다.^[3] 로이터가 10월 16~20일 이코노미스트 100명에게 물은 설문에서도 94명이 10월 동결을, 100명 모두가 12월 인상을 예상했습니다.^[3] 골드만삭스·JP모건·씨티 등 주요 증권사는 12월 0.25%p 인상을 내다봤고^[5],뱅크오브아메리카는 10월 23일에도 이번 회의 인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.^[3]

다만, 12월 인상 확률은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입니다. 보도된 확률은 10월 15일 89.5%, 10월 20일 82.8%였고^{[5][4]}, 이번 주를 앞두고는 76.2%입니다.^[3] 2년물 국채 금리도 9월 28일 4.92%에서 10월 23일 4.69%로 0.23%p 내렸습니다.^[6] 2년물 금리는 앞으로의 기준금리 예상을 많이 따라 움직입니다. ING는 미국 기술주 매도세가 연준의 긴축 기대를 줄였다고 짚었습니다.^[7]

용어 풀이

색인 · 표

페드워치

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(CME)가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으로 계산해 내놓는 지표로, 앞으로 열릴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바뀔 확률을 보여 줍니다. 시장이 예상하는 값일 뿐 연준의 결정은 아닙니다.

용어 풀이

색인 · 7

국채 금리

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하는 이자율입니다. 이미 발행된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르면, 그 가격에 사는 투자자가 받는 수익률(금리)은 내려갑니다. 10년물은 만기가 10년인 국채입니다.

2 연준 안에서는 한 번 더 올리자는 쪽이 많다

9월 점도표: 2026년 말 기준금리 예상별 위원 수



출처: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

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한 번 더 인상 쪽에 모여 있습니다. 9월 점도표에서 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 4.00~4.25%로 예상했고, 4명은 두 번 더 인상을, 2명은 지금 수준을 점쳤습니다.^[8] 9월 회의 의사록에도 '대부분의 참가자'가 연말까지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.^[9]

위원들의 말은 조금씩 엇갈립니다.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10월 8일 물가를 2%로 더 빨리 되돌리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, 올리는 시기는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^[10] 반면,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월 말 연내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기다릴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^[11]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방향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니다. ING는 워시 의장이 9월 인상 전과 달리 이번에는 인상 가능성을 띄우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.^[7]

물가와 고용은 서로 다른 쪽을 가리킵니다.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.7% 올랐고^[12], 미시간대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내다본 1년 뒤 물가 상승률은 10월 4.7%였습니다.^[13] 반면, 9월 일자리는 29,000개 느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.2%로 조금 올랐습니다.^[14]

이번 회의에서는 반대표가 몇 개 나오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. ING는 7월 회의에서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냈던 클리블랜드·미니애폴리스·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먹·닐 카시카리·로리 로건 총재가 이번에도 반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^[7] 3분기 국내총생산(GDP) 속보치와 9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는 결정이 나온 뒤인 10월 29일 밤 9시 30분(한국 시각)에 발표됩니다.^[15]

용어 풀이

색인 · ㄱ

기준금리

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입니다. 미국은 연방준비제도(연준), 한국은 한국은행이 정합니다. 올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줄고 물가가 누그러지기를 노립니다.

용어 풀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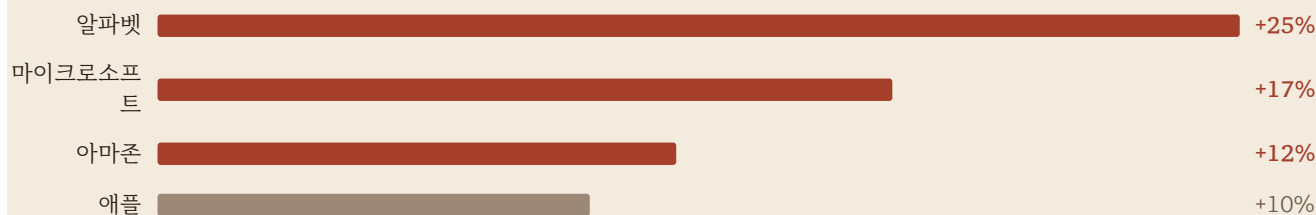
색인 · ㅈ

점도표

연준 위원들이 올해와 앞으로 몇 년의 연말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이면 적절할지 각자 점으로 찍어 모은 그림입니다. 1년에 네 번 경제전망과 함께 나오며, 점들의 가운데 값(중간값)을 연준이 그리는 금리 경로로 읽습니다.

3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·알파벳·아마존이 실적을 낸다

월가가 예상하는 분기 매출 증가율(1년 전 대비)



출처: 하그리브스 렌스다운

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세 곳이 실적을 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10월 28일, 아마존은 10월 29일 미국 장 마감 뒤 발표하고, 한국 시각으로는 각각 다음 날 새벽입니다.^[16] 애플은 다음 주 11월 2일에 발표합니다.^[17]

LSEG가 모은 월가 예상치로는 네 회사 모두 매출이 1년 전보다 10%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.^[17]

지금까지 나온 실적으로는 예상을 넘는 회사는 많지만 넘는 폭은 작습니다. 팩트셋에 따르면 10월 23일까지 실적을 낸 S&P 500 기업의 83%가 예상 이익을 넘었지만, 넘는 폭은 2.1%로 5년 평균(7.5%)에 못 미쳤습니다.^[18]

M7의 이익 증가세는 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팩트셋이 10월 19일 모은 애널리스트 예상치로는 M7의 3분기 이익이 33.2% 늘어 나머지 493개 기업(27.7%)보다 빠르지만, 4분기에는 23.6%로 나머지(30.6%)보다 느립니다.^[19] 그렇게 되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.^[19]

용어 풀이

색인 · ㄴ

매그니피센트 7

미국 증시를 이끄는 대형 기술주 일곱 곳, 애플·마이크로소프트·알파벳·아마존·엔비디아·메타·테슬라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. 줄여서 M7이라고도 합니다.

용어 풀이

색인 · ㅋ

컨센서스

증권사 분석가들의 실적 예상치를 모은 값으로, 월가 예상치라고도 부릅니다. 모으는 곳(집계 기관)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,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바뀝니다.

4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,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가 관건이다

지난 분기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(1년 전 대비)



출처: 하그리브스 랜스다운

마이크로소프트의 7~9월 분기 매출 예상치는 90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% 많고, 주당순이익 예상치는 4.73달러로 14% 많습니다.^[17] 회사가 7월에 내놓은 매출 전망(899억~910억 달러)의 위쪽입니다.^{[16][17]}

월가는 애저 성장률을 가장 먼저 봅니다. 회사는 이번 분기 애저가 약 45%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, 직전 분기 43%보다 빠른 속도입니다.^[17] 45%는 시장이 넘기를 기대하는 기본선입니다. 1월에는 애저 성장률이 회사 전망을 넘었는데도 기관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쳐 주가가 10% 떨어졌습니다.^[20] 이번 분기 설비투자도 약 500억 달러로 직전 분기(약 360억 달러)보다 늘어날 전망이어서, 투자가 매출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걱정입니다.^[20]

알파벳의 3분기 매출 예상치는 1,280억 달러로 25% 많지만, 주당순이익 예상치는 3.03달러로 대체로 제자리입니다.^[17] 1년 전 3분기 순이익에 보유 주식에서 난 이익 107.3억 달러 같은 일회성 이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^{[21][17]}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보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^[17]

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분기 82% 성장했고, 수주잔고는 5,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.^[17] 다만, 알파벳은 올해 설비투자 전망을 1,950억~2,050억 달러로 올렸고 지난 분기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.^[17]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맷 브리츠먼 선임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AI 모델 제미나이가 검색·클라우드·소비자 앱에서 고객이 돈을 내고 쓰는 제품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^[17]

용어 풀이

색인 · ㅋ

클라우드

데이터센터의 서버와 저장 공간을 인터넷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, 아마존의 AWS,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가 대표적이며, AI를 학습시키고 돌리는 연산 능력도 이렇게 빌려 씁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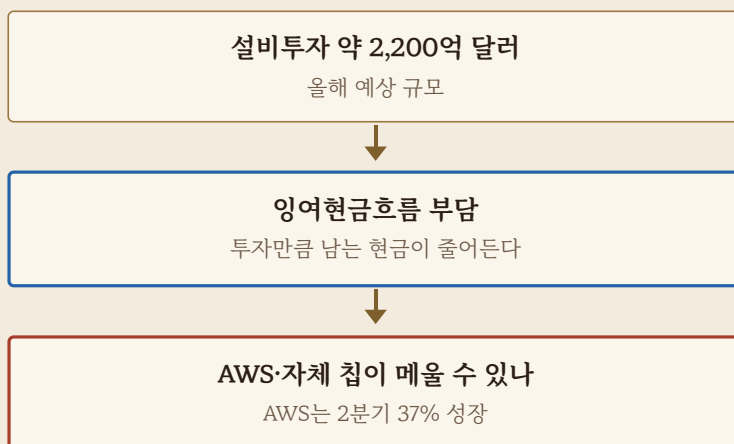
용어 풀이

색인 · 스

주당순이익

회사가 번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, 영어 약자로 EPS라고 합니다. 월가는 일회성 손익을 뺀 조정 주당순이익으로 예상치와 실제 실적을 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
5 아마존은 AWS와 현금흐름, 애플은 아이폰 18이 관건이다



출처: 하그리브스 랜스다운

아마존의 3분기 매출 예상치는 2,020억 달러로 12% 많고, 주당순이익 예상치는 1.96달러입니다.^[17] 매출 예상치는 회사가 7월에 내놓은 전망 범위(1,970억~2,020억 달러)의 맨 위입니다.^{[16][17]}

월가는 AWS가 지난 분기 37%까지 끌어올린 성장 속도를 이어 가는지를 봅니다.^[17] 올해 설비투자가 약 2,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잉여현금흐름을 누르는 만큼, 회사가 내놓을 전망에도 눈이 쏠립니다.^[17]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은 지난 분기 기준 연 매출 약 250억 달러 규모로 커진 자체 칩 사업이 구글의 자체 AI 칩 TPU처럼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.^[17]

애플은 11월 2일 9월 분기(2026 회계연도 4분기) 실적을 내고, 새 최고경영자 존 터너스가 결과를 설명합니다.^[22] 매출 예상치는 1,130억 달러로 10%, 주당순이익 예상치는 1.98달러로 7% 많습니다.^[17] 메모리 값이 올라 이익률을 누르는 가운데, 아이폰 18의 값을 올린 것이 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.^[17]

앞으로 지켜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. 10월 29일 새벽(한국 시각) 연준이 12월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남겨 두는지, 10월 29~30일 새벽(한국 시각) 세 회사의 클라우드 성장률이 시장 눈높이를 넘고 설비투자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, 11월 2일(미국 시각) 애플이 메모리 값 부담을 얼마나 이겨 내는지입니다.

용어 풀이

색인 · ○

잉여현금흐름

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에서 공장·설비 같은 설비투자에 쓴 돈을 뺀 값입니다. 마이너스면 번 현금보다 투자에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.

출처

1. [Meeting calendars and information](#) ·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· 2026. 10. 26 [↩ 본문으로](#)
2. [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](#) ·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· 2026. 09. 16 [↩ 본문으로](#)
3. [U.S. Economists See Fed Holding Rates on the 28th, Hiking in December](#) · 서울경제 · 2026. 10. 26 [↩ 본문으로](#)
4. [The Fed will sit still on October 28 – but 100 of 100 economists now expect a December hike](#) · 미트레이드 · 2026. 10. 22 [↩ 본문으로](#)
5. [Factbox-Major brokerages expect next Fed rate hike in December](#) · 로이터(인베스팅닷컴 전재) · 2026. 10. 15 [↩ 본문으로](#)
6. [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 2026](#) · 미국 재무부 · 2026. 10. 23 [↩ 본문으로](#)
7. [Federal Reserve preview: A pause before a December hike](#) · ING · 2026. 10. 23 [↩ 본문으로](#)
8. [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, September 16, 2026](#) ·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· 2026. 09. 16 [↩ 본문으로](#)
9. [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, September 15–16, 2026](#) ·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· 2026. 10. 07 [↩ 본문으로](#)
10. [Fed's Waller: More hikes needed, but there is 'flexibility' about the pace](#) · 로이터(킵코 전재) · 2026. 10. 08 [↩ 본문으로](#)
11. [Are Fed Officials Changing Their Tone Ahead of October's FOMC Meeting?](#) · JP모건 채이스 · 2026. 10. 12 [↩ 본문으로](#)
12. [Consumer Price Index – September 2026](#) · 미국 노동통계국 · 2026. 10. 14 [↩ 본문으로](#)
13. [Surveys of Consumers – Final Results for October 2026](#) · 미국 미시간대학교 · 2026. 10. 23 [↩ 본문으로](#)
14. [The Employment Situation – September 2026](#) · 미국 노동통계국 · 2026. 10. 02 [↩ 본문으로](#)
15. [Release Schedule](#) · 미국 경제분석국 · 2026. 10. 26 [↩ 본문으로](#)
16. [Microsoft, Alphabet and Amazon Lead the Earnings Week of October 26](#) · 스톡타이탄 · 2026. 10. 23 [↩ 본문으로](#)
17. [US tech earnings preview – what to watch from Big Tech](#) · 하그리브스 램스다운 · 2026. 10. 16 [↩ 본문으로](#)
18. [Earnings Insight](#) · 팩트셋 · 2026. 10. 23 [↩ 본문으로](#)
19. [Are "Magnificent 7" Companies Still Top Contributors to S&P 500 Earnings Growth for Q3?](#) · 팩트셋 · 2026. 10. 19 [↩ 본문으로](#)
20. [Microsoft's Earnings Problem: Even Great May Not Be Enough](#) ·마켓비트(야후 파이낸스 전재) · 2026. 10. 23 [↩ 본문으로](#)
21. [Alphabet Announces Third Quarter 2025 Results\(8-K 첨부 99.1\)](#) · 알파벳(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) · 2025. 10. 29 [↩ 본문으로](#)
22. [Apple to Report Q4 2026 Earnings on November 2](#) · 맥루머스 · 2026. 10. 06 [↩ 본문으로](#)

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이며,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

금리

서고 『갈피』

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이며,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